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60901

갑: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을: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병: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 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 기>—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ㄴ. 을은 도덕 판단의 근거와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ㄷ. 병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의 학제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ㄹ. 을, 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907

갑: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을: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 ① 갑: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한다.
- ② 갑: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③ 을: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④ 을: 노력자(勞力者)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 ⑤ 갑, 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906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서 나온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원리에 따라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연명 의료에 대한 의향서 작성을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세요.
- ② 이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④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⑤ 자연법의 원리가 아닌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하세요.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614

갑: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융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규 문항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명(名)을 바로잡을 것이다.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으며,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들 곳이 없게 된다.

- ① 통치자는 덕(德)이 아니라 형벌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② 통치자는 시비(是非)의 분별 없이 모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 ③ 통치자는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한 후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 ④ 통치자는 백성이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⑤ 통치자는 분배에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6.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0603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603

갑: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뜻이 있는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헤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을: 성인(聖人)의 삶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휴식과 같다.

- ① 갑: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갑: 죽음은 내세(來世)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 ③ 을: 죽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道)와 연관된 현상이다.
- ④ 을: 죽음은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만 하는 슬픈 일이다.
- ⑤ 갑, 을: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규 문항

사유할 때 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사유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되도록 사유만으로 개별 대상에 접근하는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정의에 관한 지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사람은 눈과 귀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몸 전체와 자기 자신을 가능한 분리하여,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대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유를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한다. 몸이 혼과 함께하면 혼을 혼란에 빠뜨려 진리와 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 ① 죽음은 삶의 단절이므로 마땅히 애도해야 할 슬픈 일이다.
- ② 죽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 ③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 ④ 죽음 이전에 철인(哲人)은 참된 진리를 순수하게 인식할 수 있다.
- 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612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여성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는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성의 도덕 발달 과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규정되는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다.

- ①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 ② 감정을 배제한 선행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 한다.
- ③ 배려는 보편적 의무 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④ 성차는 존중해야 하나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같다고 봐야 한다.
- ⑤ 도덕 판단은 상황적 맥락보다 합리적 추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1120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